

# 어버이살이

趙 斗 英\*

## Parenthood

Doo-Young Cho,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5(1) : 3-11, 1997* —

In becoming parents, the marital partners enter into a new developmental phase. The conception of the child is an act of mutual creativity during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the self and another were temporarily obliterated more completely than at any time since infancy. The infant is a physical fusion of the parents, and their personalities unite within the child. For many women, creativity as a mother becomes a central matter that provides meaning and balance to their lives. The husband usually has strong desires for an offspring and can be transformed by it. The child can profoundly affect one or both parents, and the influences are reciprocal—a child's needs or specific difficulties uncover a parent's inadequacy. Following the child's development, each transition into a new developmental phase requires an adaptation by the parents, and one or another of these required adaptations may disturb a parent's equilibrium. And the personality changes, emotional difficulties, and regressions of a spouse that occur in response to some phase of parenthood can upset the marriage. Not only do children identify with parents, but parents also identify with their children. The parents take pleasure in child's joy and suffer with the child's pain more than in almost any other relationship. In certain respects the parents lives again in the child.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the child can also provide one of the two parents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intimately the way in which a person of the opposite gender grows up. Parenthood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to be loved, admired, and needed simply because one is a parent and, as such, a central and necessary object in the young child's life. The many potentialities for emotional satisfactions from parenthood manage to outweigh the tribulations and sacrifices that are required. The child also exerts an indirect effect through changing the parent's position in the society, for new sets of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as the parents are drawn to other couples with children of the same age, and for a new impetus toward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often possesses the parents. Frequently the couple's relatedness to their own parents improves and grows firmer once again. Parenthood, the satisfactions it provides and the demands it makes, varies as life progresses ; and changes with the parent's interests, needs, and age as well as with the children's maturation. There are phases in the child's life that th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arents are reluctant to have pass, whereas they tolerate others largely through knowing that they will soon be over. The changing lives of the children provide many satisfactions that offset the tribulations, uncertainties, and regrets. The parents change. The young father, who was just starting on his carrier whom the first child was born, settles into a life pattern. He becomes secure with increasing achievement and interacts differently with the youngest child and provides a different model for him than for the oldest. The mother may have less time for a second or third child than for her first, but she may also be more assured in her handling of them. The birth of a baby when the parents are in their late thirties will find them less capable of physical exertion with the child and less tolerant of annoyances, but they are less apt to be annoyed. Eventually the children marry and leave home, but the couple do not cease to be parents.

**KEY WORDS :** Life cycle · Parenthood · Parent.

결혼한 남녀에게 첫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부생활에서 가족생활로 삶이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부부는 더 이상 소꿉장난을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결혼생활과 아버지구실을 하는 무거운 책임의 인생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 임신(妊娠)과 출산(出産)이 부부에게 주는 의미

결혼과 출산은 같은 의미일 때가 많지만 엄밀하게는 다르다. 즉 결혼은 하였지만 아직 출산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않은 경우가 근래에 부쩍 늘고 있으며, 특히 여자들이 직업을 가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젊은 아내가 마음속으로 임신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이는 결혼생활이 안정되어 그 다음번 인생사(人生事)를 맞을 준비가 된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런 젊은 아내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분가를 생각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장에 흥미를 잃어간다. 그녀는 새식구를 염두에 두고 집을 꾸미려하며, 성생활에서는 사랑과 재미의 차원을 넘어 그 어떤 숭고한 경지를 찾는 모습을 보여 배우자를 다소 당황하게 만드는 수가있다. 그러다 월경이 있으면 그녀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진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않으면 그녀는 직장을 집어치우고 집에만 있으려한다.

부부는 임신초기부터 마음속에서 태어날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이 결혼생활을 더 확고히 안정시켜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 반면 부부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를 만든다. 태아란 부부가 몸과 마음을 섞어 만든 창조물인 동시에 부부가 관심과 책임으로 지켜 보아야 할 창조물이다. 임신확인을 받은 아내는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어떤 아기일까?'라는 궁금증에다 '이렇게 한 번 키워보자!'는 백일몽을 꾸며 산다.

출산은 여자에게 새생명 창조의 기쁨과 더불어 자기 인생에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만족을 준다. 즉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다 준다—(1) 그녀의 어린시절에 겪었던 '나는 무언지 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자타에 대한 새생명 창조능력 입증으로 상쇄받는다. 크면서 남자들을 부러워했던 여자의 경우라면 자식을 통해 남자쪽 인생을 살려는 무의식적 소망에서 '아들낳기'를 대놓고 염원한다. (2) 엄마를 젖히고 아빠의 아기를 낳아 아빠에게 바치고 싶었던 어린시절의 환상이 상징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3) 아내로서만의 위치를 벗어나 이제 '어머니'의 대열에 끼게 되니 자기 친정어머니와 동급(同級)이 되었다는 뿌듯한 느낌을 준다. (4) 이렇게 만들어 준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깊어진다. 아기란 인자한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그녀 자신일 수도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의 출산욕구는 때로 너무 강해 자기생명까지도 걸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여자가 있다. 예컨대 임신하면 임신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릅쓰고 그래도 출산으로까지 돌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이다. 그러니 '무자식 상팔자'라면서 젊어서 아이를

남지않던 여자는 늙어서 후회한다.

그러면 남자들 쪽은 어떤가? 출산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다 준다 — (1) 남자들은 씨를 뿌리고 싶은 욕망이 강하니, 출산은 자기자신의 '계속'을 의미한다. (2) '사내다움(virility)'의 증명이며, 사내구실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3) 엄마처럼 자기도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던 어린시절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4) 아기가 나를 따른다는 데에서 자기애(自己愛, narcissism)적 욕구가 만족된다. (5) 어려서부터 꿈꾸던 '아버지'라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다. (6) 아기에게 아내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데서 질투심을 가져다 준다. 아들을 낳은 경우가 더욱 그렇고, 그래서 아들에 대해 '동기간 경쟁'(sibling rivalry)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에디프스기(oedipal phase) 경험에 비추어 언젠가는 저놈이 나를 물리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싹트기도 한다.

첫아이의 출생은 부부사이를 좀더 안정시키고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 이제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부 공동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권태가 사라지고, 결혼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가신다. 결혼이란 되물릴 수 있지만 자녀는 바꾸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젠 할 수 없구나!'라는 체념에서 인생에 말뚝을 박는다.

## 자녀양육(子女養育)

결혼으로 남녀 각자의 인생이 변했다고 할진대 첫아이의 출생은 이들 남녀의 생활을 더 크게 변화시킨다. 양육은 자식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도 사랑과 안락감같은 정서적 욕구도 만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 새로운 능력을 활용해 볼 기회를 때맞추어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 잘 키운다는 것은 자식의 욕구 변화에 맞추어 자식과의 관계양식을 바꿀줄 아는 지식·능력·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홉달짜리 아기를 보호하는데 걸맞는 육아능력은 걸음마하는 아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육아능력이 모든 엄마에게 골고루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엄마들은 전적인 의존상태에 있는 갓난아이를 키우는데는 적격이나 아기가 커서 걸음마하고 자꾸 뛰쳐 나가려는 시기가 오면 애간장을 태우면서 아이를 야단만 치는 속수무책에 빠지는 수가 있다. 보통 엄마들은 첫아이 때는 경험이 없어 자신없

어 하고 조심조심 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들여다 보는 재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안겨준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출산을 거듭함에 따라 가사와 육아에 쫓겨 시간을 쪼개쓰는 버릇이 생기며,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기가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서 커서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날만 고대하게 된다.

직장여성들은 때로 어쩔수 없이 출산을 연기하며, 출산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려면 아이키워줄 사람을 구해야만 한다. 얼마 전만 해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럴 때 구원자로 나서 주었지만 요즘은 그들도 약아져 여간해서 나서주지 않는다. 그러니 큰 돈을 주고 마땅한 사람을 구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아이가 조금 탈이 나면 엄마는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집을 나와 있는 그 자체로도 죄책감을 느낀다. 또 퇴근해 집에 와서는 보상심리에서 아이만 위대하니 서러운 것은 밀려난 남편이다. 그래서 상당수 직장여성이 출산후에는 직장을 사직하고 집에 있다가 막내가 유치원이나 영아원에 들어갈 때쯤 다시 취업한다.

자식은 키워주는 부모를 본받아 동일시(同一視, identification)한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부모도 자신들을 자식과 동일시하는 법이다. 이런 자식과의 동일시는 어머니쪽이 아버지쪽 보다 먼저 생기는데, 이는 아기가 자기 몸의 일부로서 자기 몸 속에서 자랐다는 데서 동일시가 출산이전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출생당시의 아이는 귀여운 모습이 아니다. 즉 그때의 아이는 주름지고 붉고 습한 피부, 산도(産道)를 갓 통과해 이상한 형태의 머리와 눈, 큰 머리통과 왜소한 엉덩이를 가져 꼭 '외계인'같아서 어떤 아버지들은 속으로 기겁을 하다가 이 아이가 좀 얼마지난 뒤 사람모습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써 '내 새끼, 나 자신'으로 받아들인다(Lidz 1983).

자식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고,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자식이 잘 크고 똑똑하면 부모의 자랑이요 보람이다. 이러한 자식과의 동일시는 자식이 노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장난감 놀이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는 마치 자기가 그러는 것으로 느낀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생을 되산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둘러싼 인생환경을 자기 때 보다 더 좋게 해주려 기를 쓴다. 자신이 어려서 부족하게 자라 한이 맺힌 부모는 과잉반응할 때가 많아 자식에게 아직

쓸 줄 모르는 장난감을 미리 시주어 결국 부모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놀며 자식은 단지 부서놓기만 하니 이런 지나침은 자식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대로 어려서 너무 위함을 받고 자랐거나 무분별한 방종과 방입속에서 자란 부모라면 역작용으로 자식을 바짝 죄면서 키운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나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자식을 자기 분신(分身)으로 보면서 본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성(異性)의 세계속에 빠져 봄으로써 세상살이의 폭을 넓힌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간섭하면 발달과 성숙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식들이 발달단계를 거쳐 가면서 그때 그때마다 부모들이 겪는 행복과 고충이 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학령기에는 부업일을 도와주는 일꾼이 되며, 청소년기에는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말벗(companion)이 되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어버이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해 주는 고마운 딸이 된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옛날 자기가 하던 짓과 놀이를 그대로 좇아 반복하는 분신구실을 해주어 바라볼수록 기특하고 대견하다. 즉 자식들은 부모 본을 따서 부모가 좋아했던 음식·취미·운동·직업을 대(代)를 이어 좋아하니 경쟁심 없이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행복하기만 하다.

부모들의 인생과 입장 또한 변하는 고로 첫아이 때와 막내 때의 양육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 또 느낌막이 막내를 낳는 경우는 체력이 딸려 전처럼 열심히 키우지 못하는 대신 늘어난 경험으로 쉽게 키운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또 그런 자식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데, 불행히도 일부 부모들은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녀양육을 짐스러워 한다. 부모가 자식의 능력과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으면서 그 자식이 모든 면에서 좋은 열매맺기만을 기대하는 경우는 자식의 시험불안(examination anxiety)을 높게 된다(김문주와 이해성 1991). 매 많이 때려 키운 자식은 뒤에 사회적 위축, 복통과 두통같은 정신신체증상, 우울증·죄책감·집중장애·과잉행동·학학피학증(sado-masochism)·성(性)문제 같은 정신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권자영 등 1992).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큰 자식이 맡아들인 경우라면 틱장애가 잘 생기고(金自成一 1994), 냉랭한 부모에게서 심하게 간섭받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이현만과 한성희 1996).

## 자녀양육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가 자식들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 반대로 역시 사실이다. 즉 부모의 심신(心身) 또한 자식의 영향을 받는다.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때문에 그 전까지 몰랐던 부모쪽 성격상의 단점이 들어난다.

특히 갓난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기 쉽다. 예컨대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남편내조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아내가 있다 하자. 낳은 지 3주째인 그녀의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지 어디가 아픈지 달래고 달래도 울고 불고 괴로워한다. 교양 있는 그녀는 소아과의사에게 아이를 데려가려 할 터이고, 동시에 의사의 진단은 엄마의 양육미숙으로 나와 자기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한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가 엄마로서 '실패작'임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만든 아이가 차라리 원망스러워진다. 이리다가 그녀는 느닷없이 편두통(migrains)을 경험한다.

자식이 태어난 뒤 소화성궤양(peptic ulcer)에 걸리는 남편들이 더러 있다. 이들은 원래부터 가난과 굶주림을 겪지않을까 유난히 걱정하는 사람들로써, 그 때문에 일부러 직장여성을 배우자로 맞아들였던 것인데 이제 출산으로 아내가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안이 커져 궤양을 앓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능력은 자신이 어려서 받은 양육과 관계가 깊다. 어려서 친정어머니가 잘 해 만성적인 좌절이나 분노를 겪지않았던 새엄마에게는 은연중에 자신감이 붙어있어 체자식을 잘 돌보며, 따라서 여자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자긍심이 높아진다. 이런 새엄마는 양육상 다소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공연히 과민반응을 해 자책과 남 원망을 하지않는다. 반대로 어린시절을 불만과 불안속에 지낸 새엄마는 아이가 보채면 어쩔줄 몰라하고 같이 짜증을 부리면서 자기 못난 탓을 한다. 좀 심해지면 이런 엄마는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아이를 미워하며, 모자(母子)가 함께 좌절의 수렁에 빠져 서로를 더 좌절시킨다. 이런 악순환은 마침내 엄마를 우울에 빠뜨리고, 결혼생활에 금이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이런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project-

tion)는 뒤에 가정파탄까지 물고 올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발달단계마다 고유한 양육상의 고충이 있다. 그래서 발달단계 전환기마다 이에 적응하는 마음가짐이 부모에게 필요하다. 자식을 학교에 처음 보내면서 어머니는 자기 어려서 친정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서 겪었던 고초를 회상할 수 있다. 또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딸을 두고 아버지는 질투가 날 수 있으며, 다 큰 자녀가 집을 떠나버리고 나면 남은 두 부부는 어쩔바를 몰라할 때가 많다.

좀 더 그럴듯한 예 들만 들어보자. 첫째로, 어느 여자가 있다. 그녀는 어려서 자위행위(masturbation)를 자주 했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만약 어머니가 이를 알면 자기를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여자가 이제 어머니가 되어 청소년이 된 자기 아들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이성(理性)을 잃고 아들에게 “너, 그 짓 하면 바보가 된다!”고 무섭게 경고할 것이다. 두번째 예로, 어려서 이사를 자주 다녀 친구를 오래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과거를 가진 여자가 있다. 이제 그녀의 아들에게 학교친구와 한 번 싸웠거나 또는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아들을 ‘못났다!’고 몰아 부칠 것이며, 아들은 그 말에 주눅이 들어 그 뒤로는 정말로 친구사귀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어느 한쪽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다른쪽 부모에게 심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격 좋고 인물 좋아 남편에게 사랑받고 주위에서 찬탄받아 온 여자가 이제 중년이 되었다 치자. 그런데 남편이 모녀(母女)싸움에 딸 편을 어찌다 몇번 들었다. 그 이후 그녀는 남편을 달달 복게 되었다.

자녀양육은 부모를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원조를 목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학부모끼리 친해지며, 이것이 뒤에는 자녀교육을 떠나 순수한 친근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좋은 학군(學群)으로 이사가기도 하며, 자식들 장래를 위해 기를 쓰고 경제사회적 계층을 올린다. 직접 자식을 키워보니 친부모가 자기들을 기를 때의 고충에 새삼 이해가 가서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늙은 친부모를 보게 되고 따라서 사이가 좋아진다.

## 모성애(母性愛)와 부성애(父性愛)

어머니는 어린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요, 양육자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차적 보호자요, 양육자인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또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녀 자신의 정서적 욕구 충족에도 남편이 필요하므로 아버지의 존재는 여하튼 자녀양육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머니는 젖먹이 자식이 자기 젖꼭지를 빨 때 그 자식과의 일체감(a feeling of union, 연합감)을 느낀다. 미국 여류소아분석의 Benedek(1959)는 모성애의 근원으로 둘을 들었는데, 그중 으뜸되는 것으로 그녀에게 있는 생식욕구(reproductive need)를 들면서 이것이 성인에서 ‘주고싶고, 돌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성향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다른 한 근원으로서는 그녀 자신의 구강기(oral stage)에 뿌리를 둔 ‘받고싶은’ 성향이라는 것이다. 자기 어려서 ‘주는’(giving) 친정어머니에게서 잘 ‘받고’(receiving) 큰 사람은 이 언어이전기(pre-verbal period)경험이 뇌리에 자동입력되었었다가 자기가 어머니가 되면 부지불식간에 옛 어머니를 본 따(identification with the mother)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보살펴주는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Benedek는 또한 부성애의 근원도 두 가지로 보았다. 즉 그 첫째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양성성(biological bisexuality)으로서 아버지에게도 여성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자기가 어려서 거처나온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이다. 아기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웃고, 종알대면 이것이 아버지 속에 있는 ‘모성’(motherliness)을 재발동시키고, 따라서 그는 아기를 얼려주고, 안아주고, 데리고 놀아주며 여기서 즐거움을 맛본다. 그래서 이렇게 ‘부성’(fatherliness)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돌봄(maternal care)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반면 아버지의 돌봄은 서로 뒹굴고 노는 뺨찌지 근함이 있어 가끔은 아이에게서 불쾌와 불안을 야기한다 해서 전문가 대부분이 차이를 둔다(Parens 1975).

이제까지의 전통적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밖에 나가 돈 벌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양육 한다는 식으로 부

모의 역할이 갈라져 있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고, 그래서 부모자식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대상을 모자관계에만 두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여성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또 과거 남성직업으로 통하던 곳에도 여성진출이 늘어났고, 이혼·이사(移徙)·전직(轉職)·별거가 늘어나 급기야는 아버지나 가정부가 대신 양육에 매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연구방향도 부자(父子)관계로도 뻗기 시작하였고, 나온 결론은 아버지의 있고 없음이 자식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아동건강연구소의 Lamb & Oppenheim (1989)은 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 전문가들인데, 이들은 근래 매일 매일의 자녀양육에 관심과 열정을 쏟는 '새로운 아버지'(the new father)를 5년간 관찰·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1) 남편은 일하고 아내가 주부(主婦)로 있는 가정을 놓고 볼 때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를 일대 일로 데리고 있는 시간은 어머니가 그러하는 시간의 1/4이었고, 아버지가 자녀 근처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직접 양육에 뛰어들 태세로 있는 시간은 어머니의 그런 시간의 1/3이었으나 부부기간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책임을 진다고 부부간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2) 아내가 직장여성인 경우 남편이 직접 육아에 나서는 시간은 어머니가 그러는 시간의 1/3이었고, 아버지가 한 집에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식돌봄에 뛰어들게 해 놓은 시간은 어머니의 1/3이었으나 그래도 실제 양육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있었다. 즉 아내가 일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자녀양육에서 보이는 부모의 행동차이를 요약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돌봐주나 아버지는 자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다.

(4) 학령전기 자녀들과 놀이를 하는 경우에 어머니는 자녀들이 상상(imagination)과 환상(fantasy)을 하고 갖도록 이끌어 주고, 또 함께 긍정적 방향으로 놀이를 진행한다. 반면 아버지는 자식과 몸과 몸을 부딪치고 뒹구는 놀이를 좋아한다.

(5) 잦아난 아이를 돌볼 때는 부모간에 차이가 없어 똑같이 잘 하거나 똑같이 잘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 쪽이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돌보는 '현장경력'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어머니는 자식에게 더 민감해지고, 또 민감하게 자식의 특성을 알아차린다. 즉 '모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 혼자 자녀양육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 여자 못지않게 잘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가 돌봐준다고 해도 어머니만큼 자식을 품에 안고, 관심을 기울여 주며, 사랑해주고, 미소를 보내주고, 같이 종알대는 것은 못한다. 또 자식 역시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돌봐준다고 해도 어머니에게 더 애착(attach)을 갖는다. 고로 자녀양육에서 '성별'(性別, gender)이 '실제 양육관여'보다 더 중요하다.

(6) 어려서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돌봐준 경험을 한 남자는 커서 제 자식을 낳으면 똑같이 하려 든다. 그러나 이 때 아내가 이런 그를 지지하고 받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틈을 비집고 들어 갈 수가 없다. 실제로 60~80%의 아내들은 남편이 자녀양육에 끼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아마도 가정내 권력균형(power balance)이 깨지는 것을 꺼려해서 일 것이다. 어려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돌봄을 많이 받은 여자들이 제 자식을 낳으면 남편도 그래 주기를 바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7) 아버지의 자상한 돌봄속에 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인지능력(cognitive capacity)·공감능력(empathic capacity)·자제력이 크며, 남녀 차별을 덜 심하게 한다.

미국 Los Angeles 정신분석연구소 교육분석의인 Lanskey(1989)는 아버지실을 돈벌이·보호·지도·주도(主導)로 표현하면서, 아버지가 영웅적이고 용감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려면 어머니가 그런 착각(illusion)을 자식에게 심어주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 것은 도움·힘·숙달(mastery)·정의(justice)를 찾는 것과 같은지라 이는 즉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을 좇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식이 '어머니를 찾는 것'은 퇴행·위안·고집·먹이·책임면제·부상(負傷)모면을 그리워함이니 곧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을 좇음과 같다고 Lanskey(1989)는 말한다.

우리는 모성애의 본보기는 여기저기서 수없이 보고 듣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부성애의 본보기로 쓸만한 예는 그리 많이 보고 듣지 못한다. 마침 부성애의 이해로 좋은 본보기가 있어 여기 소개하겠다.

이글은 1996년도 어느 잡지에 실린 모 법조인의 글인데, 그 잡지 편집자가 임의로 '아버지는 울고 또 울었는나라...'라는 제목을 붙였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20세의 대학생 외아들의 49재에 부쳐 아버지가 직접 낭독한 고유문(告由文)인데, 이 고유문(宋宗義, 1996)을 쓴 것은 갑작스레 육체에서 빠져나간 영혼에는 한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진혼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송석윤 영가(宋錫允 靈駕)에게 고(告)하노라

그대는 불기(佛紀)2540년 3월 31일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니 그대가 이 세상에 머문 기간이 겨우 20년 남짓이었던라. 그 이틀후 그대의 육신을 불태워 유골을 수습하니 그 날은 마침 인류의 대스승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길일이었다. 이제 그대를 위한 49재(齋)의 회향(回向)에 즈음하여 몇가지의 감회와 당부를 적어 속세의 부모로서 그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자 하노라.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참으로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당하던 현현장부(軒軒丈夫)의 모습은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한줌의 재만을 남기었을 뿐이니 어찌 허무하지 았겠는가? 생이 일편무운(一片浮雲)이라더니 이렇게도 갑자기 사라지는 구름이란 말인가? 속세(宿世)의 인연으로 부자의 연을 맺었거늘 어인 연고로 세간의 정을 나눈 기간이 이리도 짧았더라 말이나? 일찌기 당대의 고승 경허선사(鏡虛禪師)께서도 한암(漢岩)스님과 헤어지면서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별의 쓸쓸한 마음이야 더 어떻다고 말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시며 슬퍼하시었다.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심정도 이리하였거늘 하물며 미망중생(迷妄衆生)인 이 부모가 너를 사별하는 마음이야 그 아픔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너는 우리의 독자로 태어났으니 마땅히 몸을 보중하여 만세의 대를 이어야 함이 조상과 부모의 바람이었으니라. 그러나, 네가 후사(後嗣)를 남기지 못한 채 일찌기 생을 마감하니 무슨 낯으로 선영을 찾으며 죄업을 어찌 조상들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이로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이미 정해져 있던 숙명이라 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제불보살(諸佛菩薩)의 큰 뜻이 이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을 탓할 수 밖에 없다. 부질없도다! 사바(娑婆)의 중생이 탐 진 치(貪 瞋 痴)속

에 그 영화(榮華)가 만대에 이어진다 하여 그 무엇이 즐겁다 하겠는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생사우비고뇌(生死憂悲苦惱)의 굴레를 하루 속히 벗어 던질 수 있다면 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송석윤 영가여! 너 비록 육신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할 지라도 소소영령(昭昭靈靈)한 너의 자성(自性)이 어찌 느낌이 없겠느냐? 오늘 七七재를 마치게 되니 이제 너는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의 칠정을 모두 끊었으리라고 믿는다. 혹시 미련이 남는다면 나의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잘 들어주기 바란다.

고단한 부모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매일 밤 지성으로 우리의 몸을 지압해주던 나의 아들이여! 이제 이 부모는 정신을 차려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향유하리라. 헌신적인 봉사와 솔선수범으로 굶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던 건강한 젊은이여! 너의 보살과 같은 마음씨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씨앗을 뿌렸을 것이리라. 무역으로 대성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 공헌하리라라고 다짐하였던 이 나라의 청년이여! 이 부모는 이미 너의 효도를 다 받았다고 자부하며 너 없는 이 나라도 이미 밝은 미래를 열고 있느니라. 가정교사를 맡아 남의 귀한 자제를 성실히 가르치던 대학생이여! 맑고, 밝고, 싱싱한 모습을 그들에게 새겨주었다는 너는 이미 그 학생의 영원한 마음의 사표가 되었다는 말이 이 부모는 들어 아노라. 존군왕, 효부모, 경존장, 봉유덕, 별현우, 서무식(尊君王, 孝父母, 敬尊長, 奉有德, 別賢友, 恕無識)의 성유심문(誠諭心文)을 열심히 읽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이여! 이는 홍진사바(紅塵娑婆)의 자경문(自警文)일 뿐 극락정토의 법음(法音)이 아니니 이제는 잊어도 좋으리라.

송석윤 영가여! 호기심 속의 치기 어린행동을 준열히 나무라며 성인군자의 도덕률만을 반복하여 주입시키려 했던 너의 아버지는 엄한 만큼의 자애로움을 보이지 못하였더라.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간섭하며 너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였던 너의 어머니는 자상한 만큼의 너그러움을 갖추지 못하였더라. 이제와 생각하면 다 헛된 푸념이로되 너의 가슴을 쓰리게 하였던 수많은 기억과 너의 진실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였던 아쉬움을 쉽사리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 부모는 이 잘못을 스스로 나무라며 몇날며칠을 울고 또 울었느니라. 이 죄를 이제는 너그러이 용서하여다오.

송석윤 영가여! 이 제(齋)를 올리는 법당은 서기(瑞

氣) 어린 봉수산(奉首山)자락의 양명(陽明)한 대지에 터 잡은 봉수사(鳳首寺)의 본전(本殿)이며 곧 준공을 앞두고 너의 영을 이 곳에 불러 나와 함께 있으니 참으로 큰 영광이로다. 또 너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삼각산 문수사(文殊寺)의 혜정선사(慧淨禪師)님과 이곳 봉수사의 만인선사(萬仁禪師)님 두분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법공양(法供養)의 기회를 마련해주시었다. 더구나 그 책에 담을 경전의 내용을 손수 가려주셨으니 이는 비탄 가운데 찾은 크나 큰 위안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홍복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중한 인연으로 그 책을 보시는 분 모두가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의 대도를 증득(證得)하여 생멸법이 적멸위락(生滅滅已 寂滅爲樂)의 경지에 드신다면 한 젊은이의 죽음이 어찌 이보다 더 값질 수 있겠는가?

송석운 영가여! 그대는 이 부모에게 생사의 덧없음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화택(火宅)에 살면서 아직도 무명 속에 허덕이는 어리석은 이 부모를 구제하려 하였던 큰 보살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노라. 진정 그대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남길 것이 있겠는가? 이제 그대와는 세간의 인연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그대를 잊겠노라. 잊혀지지 않을지라도 잊겠노라. 정녕 잊을 수 없을지라도 잊겠노라. 명이 다할 때까지 잊겠다는 말을 되풀이 할지라도 끝내는 잊겠노라.

참으로 슬프다! 창밖에 보이는 산아는 저리도 싱싱하게 푸르름을 뽐내고 있건만 회색빛 한줌의 재는 왜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여지는가? 이제 우리는 슬픔을 거두려한다. 온 것이 아니니 간것도 아니라는 역대 조사(祖師)의 한결같은 법어의 의미를 정녕 깨우치고 말리라. 허망한 사대(四大)의 형상이 상(相)이 아님을 꼭 알아보고야 말리라. 이 상(相)을 벗은 그대가 진정 기쁨 속에 있음을 알고야 말리라.

송석운 영가여! 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너의 죽음을 애도하며 명이 남은 이 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 많은 이들의 고마움을 말이다. 너의 극락왕생을 밤새워 기원하면서 잠시도 쉬지않은 채 삼세제불(三世諸佛)의 무상법어(無上法語)를 들려주신 여러 스님들. 너의 주검앞에 땅을 치며 통곡하였던 여러 집안 어른들. 너의 관을 들고 울먹이며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던 다정한 너의 친구들.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너의 앞날을 지켜보다가 갑작스런 부음

에 눈시울을 붉히시던 너의 은사님들. 수백리 길을 멀다왔고 너의 유골이 와 있는 이곳까지 달려와 지금도 너의 명복을 빌고 있는 이 많은 이들의 고마움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네가 진정 의리를 알고 신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길 줄 아는 남아대장부였다면 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크나큰 죄를 깊이 참회하여야 하리라.

이제 곧 봉송의 의식을 마친 후 이 글을 불길에 실어 바람에 날리려 한다. 너의 유골도 본래 온 곳으로 돌려 산야에 흩으려 한다. 이는 진정 감이 아니며 극락왕생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너의 명복을 빌며 지성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분들의 은혜에 기필코 보답하라. 그 길은 오직 해탈을 얻어 서천안양국(西天安養國)에 상생(常生)하는 길 뿐이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고자 한다. 석운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석운아! 다시는 이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을 불국정토(佛國淨土)에 태어나라.

나무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佛紀 二五四〇年 五月 十八日

부 〇〇〇 모 〇〇〇 합장고유

중심 단어 : 인생주기 · 어버이살이 · 부모.

## REFERENCES

- 권자영 · 안동현 · 이정숙(1992) :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 : 73-83
- 김문주 · 이혜성(1991) :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 : 24-31
- 金自成 · 李禎燮 · 洪剛義(1994) : 틱 障礙兒들의 同伴精神病理와 父母養育態度에 關한 研究.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 : 150-161
- 宋宗義(1996) : 고유문. *주간조선* 1996년 6월 13일자, pp54-55
- 이현만 · 한성희(1996) :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 : 167-178
- Benedek T(1959) : Parenthood as a developmental phase : A contribution to the libido theory. *J Amer Psychoanal Assoc* 7 : 389-417
- Lamb EM, Oppenheim D(1989) : Fatherhoo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 Five years of research. In :



- Fathers and their families. Cath SH, Gurwitt A, Gunsberg L(eds), Hillsdale, Analytic Press, pp11-26
- Lansky MR(1989) : The paternal imago. In : Fathers and their families. Cath SH, Gurwitt A, Gunsberg L(eds), Hillsdale, Analytic Press, pp27-45
- Lidz T(1983) : The person : His and her development throughout the life cycle. Revised ed., New York, Basic Books, pp467-485
- Parens H(1975) : Parenthood as a developmental phase(panel report). J Amer Psychoanal Assoc 23 : 154-165